특별 인터뷰

과학기술부
姜 昌 熙 장관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과학기술부 장관실
일자 : 4월 13일 오후 2시30분

"과학기술 존중의 風土조성에 역점"

새 정부와 함께 과학기술부로 승격된 후 첫 과학기술행정의 총책이 된 姜昌熙장관은 "과학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나무로 자랄 수 있는 과학기술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姜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연내에 설치·운영할 것이며 향후 5년간 5백억 규모의 과학문화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시어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과학기술부로 승격된 후 첫 과학기술행정 총책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정치권에 계시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 생각하셨던 과학기술행정과 직접 총책을 맡으신 후 과학기술행정의 현황에 대해 달랐던 점이 있으셨는지요? 취임소감과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독창적 기술개발 시급

IMF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무한기술경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요구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과학기술행정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4년동안 국회 통신과학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각계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선의 정책대안들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 행정부서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었는데 의미부여를 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으며, 취임하신 후 어떤 면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셨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과학기술행정의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격상 개편하고 또 정부서열도 다른 경제부처보다도 앞당긴 것은 향후 IMF시대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과학기술을 국가경영의 중심축의 하나로 설정하겠다는 '국민의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과학기술부장관에 취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전 직원 인사를 1주일만에 완료함으로써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심의를 거쳐 '98년도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였고 민군겸용기술개발촉진법을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상청, 국립중앙과학관 및 20개 출연연구기관과 삼성종합기술원 방문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계 현황이 어떤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틈나는대로 대학, 기업연구소, 벤처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 현황은 그간의 노력으로 반도체, 조선 등 일부 분야에서의 생산 제조기술은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기초 원천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논문발표편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초과학수준은 세계 17위 수준으로서 중국(12위)이나 인도(13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IMF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날로 치열해가는 무한기술경쟁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진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당면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중에서 무엇보다도 과학기술투자 확대와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과학과 함께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투자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노력과 함께, 확보된 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만 몇개라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육성을 통하여 뿌리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비교우위가 있는 몇개의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여기에 가용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IMF 어려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상 말씀드린 당면과제 해결과 IMF 관리체제 극복은 물론 국내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술선진국 진입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신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로 추진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금년중 설치·운영하여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개혁을 통한 연구생산성과 연구효율 제고,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특별대책 추진, 그리고 창의적 인력양성과 기초연구기반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97년 12월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 말씀해 주신 당면과제 중에서 과학기술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위' 연내 설치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긴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97년 12월 확정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서 정부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을 '97년 3.9%에서 2002년까지 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98 추경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이 다소 삭감되기는 했지만, '99년 이후 매년 0.3~0.4% 정도씩의 투자확대를 통해 이 목표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분야에서 연구개발투자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

다. 이러한 투자확대 노력과 함께,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중복투자 방지, 다수부처 관련사업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강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도 범부처적 협조하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일은 물론 사기를 진작시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지요.

노벨상도전 기반 구축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결국 우수한 과학기술자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한사람의 우수한 과학자를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사람의 몸을 금으로 만드는 만큼 든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과학기술자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는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두가지로 설정해 관련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빌 게이츠』·『손정의』와 같은 창의적인 혁신의 주역을 집중 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두뇌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의적인 기술혁신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 1971년 설립해 운영중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세계 10위권의 연구중심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박사 1만4천여명을 배출하여 국내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1995년에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작년에 2백18명의 석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4백60명의 석·박사과정 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대학에 우수연구센터 59개를 지정해 5백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연구참여를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과학 연구수준을 선진화해서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정예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한 고등과학원을 중심으로 물리, 수학, 화학, 생물학 등 분야에서 2001년까지 세계적인 석학 등 1백10여명의 고급두뇌를 확보하여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에 흥미를 갖고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의 조기발굴 및 관련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학, 과학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 '세계인의 두뇌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국제 수학올림피아드'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7년부터 대전지역 영재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 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중에 3개의 영재교육센터를 지정해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시, 과학기술부 직제도 기초과학 행정기능과 인력양성기능을 연계 통합하여 기초과학인력국으로 개편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우수인력양성 대책과 병행하여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장차 과학기술자의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우대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과학기술포상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다른 분야 전문가들에 비해 낮고 국가적 관심도가 크지 못하여 국가발전 기여도에 비해 충분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부에서는 실질적인 과학기술자 우대시책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나무로 자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 어린 청소년들이 법관이나 변호사보다도 과학기술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과학기술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

입니다. 일례로, 성공한 과학기술자들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과 국민에게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자상을 널리 인식시키는 것 등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업적과 성과에 걸맞는 충분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훌륭한 연구업적을 낸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지급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과학기술만의 독립된 훈·포장제도를 제정·시상해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인 명예를 높여주며, 과학기술자들이 주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자들의 신명나는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정비가 대두되어 과학기술계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권도 출연연구기관의 정비를 들고 나와 연구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와 개편 등 개선책은 어떤 것이 되겠는지요? 출연연구기관에서도 연봉제 도입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언급해 주시지요.

우리나라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지난 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이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오면서 경제·사회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개발에 있어서 정부 및 공공 부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계속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방대한 연구개발능력과 경험을 축적한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역할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이후 민간과 대학이 급성장하는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운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그동안 잘 정착된 연구문화의 손상에 따른 연구원의 사기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통폐합보다는 내부로부터의 실질적인 개혁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현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단'에서 출연연구기관의 기능에서부터 인사, 조직, 예산 및 연구관리 등 경영전반에 관하여 효율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임원·감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연봉제의 전직원 확대, 연구기관장 공모제의 도입, 냉정하고도 공정한 기관평가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姜昌熙 초대 과학기술부장관(우측)이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에게 취임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 IMF사태로 해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95년기준 기업이 담당했던 연구개발투자가 81%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위축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의 위축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

최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동향보고에 의하면 '98년도 연구개발투자가 당초계획보다 약 1조원 이상 위축될 것으로 전망(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STEPI)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공황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개발 애로요인 조사를 통하여 조세·금융·병역특례 등 각종

기술개발 관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기술개발자금, 고급연구인력 등을 확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진흥기금을 '97년 4천9백49억원에서 2002년까지 1조2천3백80억원으로 확충해 나가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기술개발자금도 '97년 1조3천7백2억원에서 '98년 1조5천억원으로 확충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도 '97년 2천1백48명보다 '98년에는 5백여명 증가한 2천6백68명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IR52장영실상, KT마크 획득제품 등 우수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시장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많이 참여하도록 경제난 해결과 산업화 관련 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과제 발굴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산업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민간의 참여를 촉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한 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관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투자, 인력, 정보, 교육,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드골대통령의 원자력·항공·우주 등 '3대 대통령 프로젝트', 미국 클린턴대통령의 'Super Information Highway계획' 등은 국가 역량을 과학기술로 결집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건의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연초 과학기술인 신년 하례식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30주년 기념식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 입국과 과학기술인 우대를 강조하시면서 어느 문제 보다도 우선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 과학기술부는 2000년에 행정부서의 위치와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가 개도국중에서 선두주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진흥정책 전개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부로 승격시킨 것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믿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교육부 및 산업기술부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다원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그동안 과기처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데도 부분적으로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부 및 산업기술부와 통합하는 안도 정부조직의 축소방침에 부응하는 등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총체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강력하게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기술이 과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에도 동의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기능 재정립 문제는 앞으로 과학기술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역할을 잘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과학 대중화사업 확대

■ 과학기술은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선진 여러 나라들이 과학기술을 국민에게 이해토록 하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97년에 마련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과학풍토조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

제적으로 대국민 과학풍토조성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풍토조성을 위해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요.

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은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생활 속에 수용할 때 비로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의 대중화를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는 국민적 이해를 확산시키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고 창의력을 길러 우수한 과학자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과학기술의 기본정신인 정직·합리·원리원칙 중시 등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때 건전한 사회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과학마인드 제고와 생활의 과학화를 위해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과학축전 개최, 전시활동, 경진대회, 과학강연회 등 과학대중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도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대한민국과학축전'을 정례적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8월에는 아·태지역의 청소년 교류 및 청소년의 과학화를 위해 18개 APEC회원국 청소년 6백여명이 참가하는 제1회 아·태청소년과학축전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이 영화, 문학, 예술, 언론 등 타분야와 상호교류가 활성화될 때, 실질적인 과학기술 풍토조성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PD, 소설가, 만화가, 기자 등과 함께 과학대중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소재 발굴 지원 및 과학대중화를 위한 소설, 만화, 드라마 등을 공동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대중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대중화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향후 5년간에 걸쳐 5백억규모의 과학문화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우수과학기술 영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학교, 단체 등에 시청각 자료를 보급해 가는 한편 KBS, EBS TV에 정규 과학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며 최근 컴퓨터 보급확대와 청소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고조에 걸맞는 과학문화정보망 및 D/B 구축 등을 통한 Cyber 과학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

저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 있는 'Du kannst, denn du sollst.'라는 문귀를 자주 인용합니다. 이 말은 '해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kannst)의 범주가 아니라 일종의 당위(sollen)라고 봅니다. 국가의 장래가 과학기술의 양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입니다.

본인은 재임중에 각계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정상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잘 이끌어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시일내에 과학기술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ST

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姜昌熙과학기술부장관은 4월 9일 오전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金大中대통령에게 과학기술부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姜昌熙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로 격상됨에 따라 정책의 중점을 양적확대에서 질적향상으로, 출연(연)중심에서 출연(연)·대학·기업의 역할 재정립 및 상호협력 중시로,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의 다원화 추구에서 종합조정 강화를 통한 일관성 확보 및 효율성 중시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중시로 전환하고,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강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강도높은 개혁 추진 ▲IMF체제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특별대책 추진을 '98년도 3대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